



## 개화기 출판의 목적 연구

생산 주체별 차이에 관하여\*

김민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minhkim@hanmail.net

개화기에 다양한 세력이 출판업에 뛰어 들었다. 출판의 생산 주체는 내부 세력으로는 정부와 토착자본가 및 신지식인 집단을, 외부 세력으로는 서구 선교사들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내부세력인 정부와 신지식인 집단 및 토착자본이 벌인 출판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구인 학부는 새로 개설한 육영공원을 비롯하여 사범학교나 초중등학교 등 신식 교육기관이 늘어 학생이라는 안정적인 독서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용 도서 출판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반면에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보성관은 학교 교육용 도서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대중을 대상으로 계몽용 도서도 출판하였다. 토착자본이 경영한 회동서관은 학교 교육용 도서도 출판하였으나 대중계몽용 도서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며, 아울러 독서대중을 대상으로 오락용 도서도 출판하였다.

**KEYWORDS** 정부 • 신지식인 집단 • 토착자본가 • 학부 • 보성관 • 회동서관 • 생산 주체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1. 서론: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서적 발행에 관한 한 선구적이다. 삼국시대에 저술한 책이 여러 종에 이른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국가 성립 초기에 이미 100권으로 된 『留記』라는 역사책이 있었다. 7세기 초에 국왕은 태학박사 이문진(李文眞)으로 하여금 그것을 요약하여 『新集』 5권을 만들게 하였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미 책을 목판으로 인쇄하였다. 경덕왕 대에 두루마리에 찍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현존하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꼽힌다.

고려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문흥정책에 힘입어 목판인쇄가 발전하였다. 태조는 내서성을 설치해 목판인쇄를 맡게 하였다. 내서성은 뒤에 비서성, 비서감, 전교서, 전교시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쇄 업무를 관장하였다(김민환, 2006). 광종 9년(958년)에 과거제도를 시행한 뒤부터 유학(儒學) 서적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에서 서적을 수입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에서 출판 사업을 폈다. 현종 2년(1011년) 무렵에는 대장경 조성에 착수해 이를 선종 4년(1087년)에 완성하였다(천혜봉, 1990, 165쪽).

13세기 초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주자(鑄字) 인쇄술을 개발하였다. 천혜봉은 ‘황도인 개성에서 13세기 초기에 주자인쇄가 실시되었다고 하였다(천혜봉, 1990, 214쪽). 1234년부터 1241년 사이에 『新印詳定禮文』을 주자로 인출하였으며, 1239년에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중조(重彫)하였다.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자 인쇄서로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旨心體要節』 하권도 1377년에 우리나라에서 찍은 것이다(천혜봉, 1990).

조선조에 인쇄술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태조는 고려조부터 존속한 서적원 외에 1392년에 교서감을 별도로 설치해 서적 출판을 맡게 하였다. 조선 전기의 출판은 세종시대(1418년~1450년)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세종은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造紙署)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개량한 다양한 활자를 잇달아 주조해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김민환,

2006). 세종은 또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한 데 이어, 한글 활자도 개발하여 국한문을 혼용한 책을 출판하게 하였다. 세종 대에 이어 문종, 세조, 성종 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고려시대를 정리하고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일련의 편찬사업을 활발하게 벌였다.

16세기 후반에 들어 서적 출판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방각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종전에 책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출판을 전담하였다. 책의 내용은 고려조에는 불경이, 조선조에는 유교 경전이 주종을 이루었다. 봉건제 하에서 서적 생산의 핵심 주체는 정부였으며 출판의 목적은 본질적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간이 판매 목적으로 책을 출판함으로써 책의 대중화를 향한 전기가 되었다.

이 같은 민간 상업출판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한때 주춤했으나, 17세기 중엽 이후 발생지와 발행소를 명기한 상업 출판물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운이 융성하던 18세기 영정조 시대에는 정부의 출판 사업이 전성기를 이루면서 민간에 의한 방각본이 서울지방에서는 기세가 꺾였지만, 그 대신 전주를 비롯해 경기도 안성과 전라도 태인 금성 등지에서 여전히 성행하였다(이중환·이두영·양문길·양평, 2001).

1876년의 개항을 전후하여 출판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서구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아 가자 서적을 수입하고 생산하는 일이 시변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서적 출판은 단연 활기를 띠었다. 서적 생산의 주체도, 그 목적도, 책의 내용도 모두 다양해졌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개화기의 서적 출판에 관하여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가 그동안 여러 편이 나왔다. 그러나 서적 출판의 생산 주체가 누구였으며 그들의 출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개화기에 어떤 세력이 어떤 의도로 서적 생산에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적 생산의 주체를 알고, 이들이 낸 책의 내용을 일별하면 그

들이 왜 책을 냈는지, 그 책이 개항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에 전개한 이들 여러 세력의 출판 활동을 재정리하고, 내부 세력인 정부와 신지식인 집단 및 토착자본의 출판 활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론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개화기에 내외부 세력은 주로 어떤 책을 냈으며, 그 가운데 내부 세력인 정부, 신지식인 집단 및 토착자본가의 출판 활동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 연구에서는 다음 절에서 출판의 역사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 뒤에, 4절에서 주요 출판 주체의 출판 활동을 정리하고, 5절에서 정부와 신지식인 집단 및 토착자본가의 출판 활동의 목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내부 생산 주체의 출판 활동과 그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각 생산 주체를 대표할 만한 출판사(출판기구) 3개를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뽑은 출판사(출판기구)는 정부의 출판 전담기구인 학부(學部),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대표적인 출판사의 하나인 보성관, 토착자본가가 경영한 대표적인 출판사인 회동서관이다. 당시 신지식인이 경영한 대표적인 출판사로 휘문관, 신문관, 및 보성관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휘문관은 민영회가, 신문관은 최남선이 설립하였는데 두 사람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대표적인 신지식인 경영 출판사로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관을 선정하였다. 토착자본이 설립한 것으로는 회동서관 외에 박문서관, 신구서림, 광학서포, 우문관, 광덕서관, 동양서원 등을 유수한 출판사로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가 회동서관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판의 목적을 학교 교육용 도서 출판, 계몽용 도서 출판 및 오락제공용 도서 출판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각급 학교에서 교재로 쓸 목적으로 서적을 발행한 것이 학교 교육용 도서 출판이라면, 지식층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교양서적이나 실용서적을 발행한 것을 계몽용 도서 출판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일반 대중이 재미있게 읽을 것을 기대한 문예 및 오락서적을 낸 것은 오락제공용 도서 출판으로 간주하였다. 소설 등 문학 출판은 이 범주에 넣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 보성관 및 회동서관이 출판한 도서의 내용이 위의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가려 생산 주체별로 어떤 차이나 특성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현 단계에서 개화기에 학부나 민간 출판사의 출판 내역을 전부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안춘근(1987)과 이종국(1991; 2005)이 정리한 바를 종합하여 개화기에 학부, 보성관 및 회동서관이 발행한 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 주제를 분석하였다. 책의 주제 구분을 위해서는 주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1971)의 『한국도서해제』를 참조하였다.

### 3. 서적 출판에 관한 기존 연구

우리 출판문화가 세계사적으로 선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적 출판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국내 연구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알려진 업적은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 비견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나마 소수 선구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출판사(出版

史)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출판사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기별로 통사를 비롯해, 조선조사, 개화기사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출판의 통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업적으로 김두종의 연구(1974)와 천혜봉의 연구(1990), 안춘근의 연구(1987; 1994) 등을 꼽을 수 있다. 김두종은 1974년에 낸 그의 명저 『한국고인쇄문화사』에서 우리나라 고인쇄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였으며, 서지사 연구에 독보적인 업적을 쌓은 천혜봉은 1990년에 그의 일련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전적인쇄사』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출판학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한 안춘근은 1987년에 『한국출판문화사 개요』를 낸 데 이어, 1994년에 『한국서지의 전개과정』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두 권의 저서 외에도 우리 출판의 역사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이들 외에도 여러 학자가 출판의 통사를 정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전영표는 1981년에 출판학에 관한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 출판의 사적 연구’를 내놓았다. 또한 신석호는 1986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사론』 3권에 우리나라 편찬사업의 역사에 대해 정리한바 있다. 조성출은 1997년에 『한국 인쇄출판 백년』이라는 대저를 냈으며, 이종한 등 3인은 2001년에 공저로 『우리 출판 100년』이라는 통사를 썼다. 한편 이종국은 1991년에 각종 자료를 망라하여 출판에 관한 사항을 연대별로 정리한 『한국출판사연표』를 내놓았다.

조선조의 출판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정형우(1983)의 연구와 신양선(1996)의 연구는 조선시대의 서지(書誌史)를 정리한 것으로 그 업적을 평가할 만하다. 김양수(1994)는 조선조 전기의 출판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정형우(1968), 백운관과 부길만(1992), 남정희(2006), 홍선표 등(2006), 이민희(2007) 등은 사료를 바탕으로 조선조의 서적 유통이나 수입에 대하여 밝혀 냈다.

조선조 출판에 관한 연구 가운데 방각본 출판에 관하여는 주목할

---

1 여기서 1876년 개항 이후 1910년 국권을 상실하기까지의 기간을 개화기로 규정하였다.

만한 연구가 잇따라 나왔다. 1960년대에 김동욱(1960)과 안춘근(1968)이 각각 방각본 출판의 개요를 밝힌 데 이어, 1994년에는 이창현이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에는 부길만이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를 통해 방각본의 진화과정은 물론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정리하였다.

전술한 바 있지만, 개화기에 들어 다양한 세력이 출판 사업을 벌여 출판 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자연히 출판사 연구도 개화기 연구에 집중되었다. 개화기 출판사 연구는 개화기의 출판 현황에 관한 것,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출판에 관한 것, 개화기의 소설 출판에 관한 것 및 개화기의 기독교 관련 출판에 관한 것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개화기의 출판 현황을 개관한 것으로는 고덕환(1984), 유상호(1986), 강명관(1999), 김봉희(1999) 이종국(1986) 등의 연구가 있다. 고덕환이나 유상호, 강명관이 개화기의 출판 현황이나 출판 운동에 대해 정리한 데 반해, 김봉희는 개화기의 서적문화를 생산, 유통 및 보관(도서관)의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이종국은 개화기 출판 활동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연표를 덧붙였다. 민병덕(1992)은 개화기의 출판관을 분석하였다. 한편 채백(2008)은 개화기에 나온 계몽서적과 역사서적, 전기류 등이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개화기의 계몽서적들이 타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데 기여하였으며 근대국가의 건설방향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역사서적들은 민족 중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기류는 역사 발전과정에서 영웅을 통한 국난 극복의 사례를 제시했다고 정리하였다.

이들보다 앞서 당대의 경제사학자인 조기준(1970)은 '개화기의 서적상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개화기 서적상의 출신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종국(2005)이 개화기의 대표적인 서적 생산 및 판매업체인 회동서관의 서적 발매 및 출판 활동을 정리하였다. 한편 양현규(1974)는 개화기의 독서계층의 성격에 대해 논하였다.

개화기의 교과서 출판에 관한 연구에 길을 트 이는 강윤희(1973)다. 그는 1973년에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그에 이어 유탁일(1975)이 『개화기 교과용 도서 총목록』을 정리하였고, 이종국은 1991년에 『한국의 교과서』라는 방대한 저서를 내 교과서 출판의 역사를 총 정리하였으며, 2008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를 저술하였다.

개화기의 소설 출판에 관한 연구로는 권순공의 일련의 연구, 소재영의 연구, 하동호의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권순공(1990; 1993)은 1910년대의 활자본 고소설에 관하여 정리한 데 이어 활자본 고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대해 정리하였다. 소재영(1995)은 고소설 판본의 형성과 유통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개화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구미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선교를 위해 다양한 출판 활동을 폈다. 이런 선교 목적의 출판 활동을 정리한 연구가 여러 편 발표되었다. 이장식(1965)은 선교사들의 출판 활동의 주체인 기독교서회의 역사를 기술하여 선교사들의 출판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노평묵(1981)은 기독교 성서 출판에 대해 요약하였다. 윤춘병(1984)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신문과 잡지를 발행한 역사를 정리하여 『한국기독교신문잡지 백년사』를 냈다. 최근에는 안종묵(2004)이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벌인 언론 활동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편, 선교 활동의 역사를 정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도 선교사들이 벌인 출판 활동의 편면을 파악할 수 있다. 김양선(1980)의 『한국기독교사 연구』, 김춘배(1960)의 『대한기독교서회 약사』, 민경배(1972)의 『한국기독교회사』, 백낙준의 『한국개신교사』(1973)와 『기독교의 전개』(1977), 유홍렬(1962)의 『한국천주교회사』 등이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고수(1981)의 『한국기독교지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독교 간행물 출판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업적을 일별하였지만, 개항 전후의 우리나라 서지 또는 출판에 대해 널리 소개한,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



(Morrice Couran)의 역저 *Bibliographie Coreenne*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를 여행한 뒤 프랑스로 돌아가 1901년에 이 책을 냈다. 이 책은 1994년에 이희재가 『한국서지』라는 표제로 번역했는데, 개화기의 서적이나 출판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선구적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개관한 출판사 연구 가운데 이 연구에 시사(示唆)하는 바가 많은 것이 고덕환의 연구(1984)와 김봉희의 연구(1999)다. 고덕환은 그의 연구에서 개화기의 출판 활동을 기독교 선교를 위한 출판, 교육출판, 애국계몽을 위한 출판, 대중계몽을 위한 출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김봉희는 그의 연구에서 인쇄나 서적 발행의 주체를 정부와 민영업자로 대별하였다. 그는 민영 사업자 가운데 계몽단체와 학교를 주목하여, 이준, 이원공 등이 1904년에 발족한 국민교육회나 흥사단의 출판 활동을 상세히 고찰하는 한편 보성학교, 휘문의숙 등의 출판 활동을 정리하였다.

고덕환의 연구가 출판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면, 김봉희의 연구는 서적 생산의 주체를 관영과 민영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연구가 개화기의 출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서적 생산의 주체가 어떤 세력이었으며, 출판 주체에 따라 출판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4. 개화기의 출판 주체와 출판 활동

근대 이행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나 근대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내부적으로 봉건정부와 토착자본가 및 신지식인 집단을 꼽을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서세동점의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구미 선교사들과 노일전쟁 이후 이른바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일본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그렇지만 서적 출판에 있어서도 이들 내외부 세력이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다.

## 1) 내부 세력의 출판

### (1) 봉건정부의 교과용 도서 출판

외세가 밀려와 사회 변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구 사회의 제도를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조선 정부도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재래의 성리학적 가치관과 교육으로 길러낸 인재들은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개화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15쪽). 개화운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절실하게 요구된 것이 신교육이었으며 교육용 교과서였다. 정부는 신교육과 교육용 교과서 출판을 거의 동시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1894년 5월 대경장을 약속하고 이어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이후 약 3개월간에 걸쳐 210건의 제도개혁안과 정책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군국기무처의 정부조직 개편 결의에 따라 학무아문관제(學務衙門官制)를 새로 제정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조선정부는 우선 외국어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1883년에 통번학교(通辯學校)인 동문학(同文學)을 설립하였다. 그 뒤로도 육영공원을 세우는가 하면 관료를 시급히 양성하기 위하여 법부 소관으로 법관양성소도 설치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그러나 이런 특수목적의 학교도 필요하지만 국민교육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기구가 필요하였다. 정부는 1894년 9월 서울 교동에 사범학교와 소학교를 설치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그 뒤로 정부는 소학교와 사범학교 관계법령을 제정 공포하고, 우선 한성부 내 장동, 정동, 계동, 조동 등에도 소학교를 설립하는가 하면, 다시 한성의 동현과 안동에 관립소학교를 증설하였고, 전국 주요 도시에 차례로 소학교를 세웠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근대 교육은 교과서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1895년 신교육 제도를 공표하고 새로운 교과서 편찬에 착수하였다.

편찬 작업은 정부 개편에 따라 새로 생긴 학부가 맡았다. 학부는 교과서 출판에 대해 활자장(活字匠)을 동원하여 인쇄체 목활자를 새로 만들고 부족한 활자는 과거의 교서관 활자를 뽑아 조판하였다. 학부는 그 해에 『國民小學讀本』과 『朝鮮歷史』를 간행하였으며, 1896년 2월 『新訂尋常小學』 3책을 간행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이종국(1991a)에 따르면, 1896년 2월에 출판한 『新訂尋常小學』 1~3권 종면에 ‘학부편 집국 개간서적 정가표’가 적혀 있으며, 20종의 신간을 소개하고 정가도 병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 무렵까지 정부가 최소한 교과용 도서 20권을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도 정부는 계속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였다.

## (2) 토착자본가들의 출판

전통적인 출판에서 근대적인 상업 출판으로 이행하는 데는 토착자본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토착자본가의 출판업 진출은 방각본 출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동욱(1960)은 팔기 위해 짠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攷事撮要』를 꼽는다. 이 책은 원래 고활자로 찍었던 것을 목판으로 다시 찍었는데 그 책 속에 “萬曆 4年 4月 日 手標橋下 北邊 第2里門入 河漢水家 刻板尋來”라고 적혀 있어, 1576년(선조 9년) 서울의 수표교 가까이 살고 있던 하한수(河漢水)라는 사람이 각판본을 출판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안춘근, 1987).

또 선조 10년에 관의 허락을 받아 민간이 조보를 찍어 팔기도 하였다. 이종연은 이로 미루어 선조 대에 전문 출판업자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종연, 2001). 그에 따르면 현종, 숙종 대에 이르면 손기조, 전이채, 권이생, 박치유 등의 발행자 명이 적힌 책이 나왔다. 1676년에 간행된 『古文眞寶』의 후서에는 아전 출신인 전이채(田以采)가 재물을 모아 사람을 고용하여 판각했다고 하였다(이종연, 2001).

부길만(2003)에 따르면, 민간이 판매 목적으로 출판한 방각본은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제1기는 방각본 출판이 시작된 시기로 왕조로

는 선조 초기부터 경종 재위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양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국가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 규범에 대한 비판의식이 대두하고 영리 위주의 농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방각본의 출판은 1세기 반 동안 겨우 8종이 발견된 정도이다. 주로 백과사전류가 발견되었고, 도의 교본과 문장학 교과서 및 기근 구제용 서적, 농학서 등이 나왔다(부길만, 2003, 34~35쪽).

제2기는 방각본 출판이 활성화한 시기로서 왕조로는 영조 초기부터 현종 전반기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영조와 정조가 승문정책을 펼치면서 문예부흥을 시도한 때이다. 이 시기에 약 29종의 방각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로 유교 경전이나 그 해설서가 많았다(부길만, 2003, 35~36쪽).

제3기는 방각본 출판에서 오락적 독서물이 강세를 보인 시기로서, 왕조로는 현종 후반기부터 순종 때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 방각본이 상품으로서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방각본 가운데 수적으로는 소설류가 가장 많았다(부길만, 2003, 36~37쪽).

개항 이후 외국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서적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개항 후 신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서울 장안에는 신구 서적을 함께 판매하는 서점이 많이 생겼다(조기준, 1970, 370쪽). 서점이 출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사가 속출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업을 천시하는 풍조가 여전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출판 사업은 자연히 중인이나 상인 출신의 토착자본가가 주도하였다.

최초의 근대적 출판사는 1884년 2월에 설립된 광인사(廣印社)다. 광인사는 민간인이 합자하여 창설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민간인에 의한 근대적인 인쇄소이자 출판사다. 『한성순보』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城內又有 廣印社 各合錢財 另設一社 將次板出書籍 以文規圖書商利 裨益昌明矣.<sup>2</sup>

광인사는 “합자회사로 설립한 출판사로서, 장차 서적을 출판하여 상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조기준, 1970, 374~375쪽 재인용). 광인사는 ‘처음으로 연할자를 갖추고 곧 서적 발행에 착수해 1884년에 『忠孝集註合璧』을 출판하였다’(안춘근, 1987, 204쪽). 안춘근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연할자로 낸 최초의 출판물’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안춘근, 1987, 326쪽). 광인사는 이어 국판으로 『農政新編』과 『古權堂集』 등을 출판하였다(안춘근, 1987; 이종연, 2001). 『農政新編』은 저자인 안중수가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그곳의 농업 기술과 서양의 선진적인 농업기술에 관한 책을 탐독하고 감동하여 귀국 후에 원고를 완성하였다(이종국, 1991).

광인사가 나와 책을 출판하기 시작하자 1890년대에 다른 토착자본가들도 다투어 출판사를 설립하였다. 많은 출판사 가운데 회동서관(匯東書館)이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펴나갔다. 이 출판사의 창설자는 고제홍(高濟弘)이다. 그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백목전(무명가계)을 경영하다가 대광고(현 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건물 자리)에서 서점이 붙은 기와집을 사들여 1908년 말에 고제홍서사(高濟弘書肆)를 발족하였다(조기준, 1970). 고제홍 가문은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다. 고제홍의 어머니는 포목상의 딸이었으며 부인도 상업을 하는 집안 출신이어서 고제홍 또한 상재에 능했다고 한다. 고제홍은 백목전을 하다 서적 판매업으로 전업하였다. 상리에 밝은 사람으로서 백목이 서양에서 들어오는 목면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진 데 반해 출판은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종국, 2006). 그의 큰아들인 고유상(高裕相)은 1904년에 고제홍서사의 상호를 회동서관(匯東書館)으로 바꾸었으며(조기준, 1970), 190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판 사업을 벌였다(이종국, 2005). 회동서관은 1907년에 걸출한 장군들의 전기기를 모은 『海東名將傳』을 발행한 데 이어, 1908년에는 이해조 역술의 『華盛頓傳』을

2 『한성순보』, 1884년 2월 21일자 국내사보(廣印社).

출판하였으며, 1909년에는 지식영을 끌어들이 『字典釋要』라는 옥편을 냈다. 이 옥편은 매회 5천부씩 20여 판을 찍어 10만 부나 보급하였다. 이 책은 이종국에 따르면, 근대 출판술을 도입한 이후 최초의 베스트셀러로, 총 판매고가 당시 백미 6천 석을 웃도는 거액이었다(이종국, 2005, 235쪽). 안춘근은 회동서관이 1937년까지 약 30년간 1백여 종의 신간을 출판한 업적을 들어 초창기의 뛰어난 민간 출판사라고 평가하였다(안춘근, 1987, 326쪽).

비슷한 시기에 활발한 출판 활동을 벌인 출판사로 박문서관, 신구서림 등을 들 수 있다. 박문서관의 창설자는 노익형(盧益亨)이다. 그는 장사치들을 숙박시키고 상품을 거간하는 물상객주로서 아울러 잡화점도 경영하며 상리를 익힌 후, 1907년에 서점을 개설하였다(조기준, 1970). 경술국치 직후 대대적인 금서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노익형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의 박문서관은 『춘향전』, 『심청전』, 『옥루몽』, 『유충렬전』 등과 같은 고대소설을 출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여 1930년대에는 서적계의 패자로 불릴 만큼 성장하였다(이중연, 2001).

신구서림의 지송옥은 서역(書役)을 하는 개성 태생의 중인 지식층으로, 어려서부터 서울 봉래동에 있는 물상객주 박 모씨 상점에 고용되어 상리를 익혔다(조기준, 1970). 그 역시 서사(書肆)와 출판을 겸했다(이중연, 2001; 조기준, 1970). 조기준(1970)에 따르면 지송옥은 산수에 능하고 상재를 지닌 사람으로 문화적 사명보다는 상리가 앞서서 서점을 시작한 예에 해당한다.

이들 출판사 외에도 서울에서 광학서포(廣學書舖), 우문관(右文館), 광덕서관(廣德書館), 동양서원(東洋書院) 등이 잇달아 나왔다. 광학서포는 김상만(金相萬)이 설립하였는데 1900년에 김상만서포로 서적 유통을 시작하였다가 출판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통감부가 판매를 금

---

3 신소설이 등장하기 전에 나온 19세기 이전의 소설.

지한 책을 가장 많이 낸 출판사가 바로 광학서포다. 김상만은 민족의식이 투철하여 구국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예컨대 그는 국민교육회가 『심상소학』을 편술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발행하지 못하자 그 인쇄비를 부담하여 언론에 기록되기도 하였다(이중연, 2001; 『대한매일신보』, 1906년 8월 8일자).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김상만은 출판 사업을 접었다(이중연, 2001).

### (3) 신지식인 집단의 출판

개화기에 신지식인<sup>4</sup>이 세력화하여 개화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개화를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이 인민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인민이 지혜가 있어야 나라도 개화자강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이 없어 민지가 고루하면 여론이 공변되지 못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황성신문』의 다음 논설에서 당시 신지식인 집단의 그런 인식을 잘 읽을 수 있다.

문명의 발달은 專히 敎育보급에 在하니, 我韓 현상도 국민의 敎育이 발달되면 文明界에 進進하여 國家의 實力을 養成하며 民衆의 生活를 安穩케 할 期望이 有하려니와 만약 國民의 敎育이 發達치 못하는 경우이면 文明界에 退退하고 黑闇界에 益益墜落하여 將來 進歩를 不豫設想할지니 - 어찌 敎育방침에 對하여 士의 的當함을 隨하여 十分 주도한 思想이 無하리오.<sup>5</sup>

신지식인 집단은 인민교화를 위해 학교를 세워 학생을 교육하는 것

<sup>4</sup> 여기서 말하는 신지식인이란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여 시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인식한 일군의 지식인을 말한다. 이들 가운데 주류는 외국에 유학하였으며 일부는 새로 개교한 국내의 근대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신식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신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자 이 흐름에 동참하였다. 여기서는 이들을 모두 신지식인으로 규정하였다.

<sup>5</sup> 『황성신문』, 1908년 9월 17일자 사설.

도 중요하지만 기성인을 교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들은 학생이나 기성인을 대상으로 교화사업을 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독립신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정부에서 학교들을 시작하였으나 가르칠 책은 아주 없는 셈이고, 또 농사하는 백성과 상민과 장사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되 배울 책이 없은즉 설령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책 가지고 배울 수도 없으니 어찌 백성이 진보하기를 바라리오. 남의 나라에서는 책 만드는 사람이 국중에 몇 천 명씩이요 책 회사들이 여러 백 개라. 책이 그리 많이 있어도 달마다 새 책을 몇 백 권씩 만들어 이 회사 사람들이 부자들이 되고 또 나라에 큰 사업도 되는지라. 조선도 이런 회사 하나가 생겨 각색 서양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면 - 이런 큰 사업은 없을 터요, 장사하는 일로 보더라도 이 보다 더 이(利)남을 것이 지금은 없는지라 - 이 회사 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큰 사업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노라.<sup>6</sup>

개신유학적 지식인들이 발행한 『황성신문』은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의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開民智之第一着은 莫先於譯書라. 上卽 敎育主權자가 設譯書之局하며 養課書之人하며 獎譯書之業하고 下卽 社會有志者가 創譯書之所하며 育譯書之才하며 務課書之事하여 精譯而無粗譯하며 急譯而緩譯하여 躋我民於文明계 함을 切切是祝也하노라.<sup>7</sup>

이 사실을 통해, 이 신문이 민지를 개화하기 위해 서적을 번역하는

6 『독립신문』, 1896년 6월 2일자 사설.

7 『황성신문』, 1907년 6월 28일자 사설.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고 보고, 위로는 교육 주권자가 서책을 번역할 기구를 설치하고 서책을 가르칠 사람을 기르며 서책 번역 사업을 권장하고, 아래로는 사회의 뜻 있는 자들이 서책 번역소를 만들며 서책을 번역할 인재를 기르고 역서를 가르치기를 힘써, 번역이 정밀하여 조악하지 않고 번역을 서둘러 늦지 않게 하여 우리 국민을 문명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개화기에 여러 신문이 신문 발행과는 별도로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다. 독립신문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신문사는 1898년 4월에는 만국 통용의 의회규칙을 번역한 책을 발행했으며,<sup>8</sup> 1899년 11월에는 서양요리책을 발행하였다.<sup>9</sup> 이 신문은 사소한 사업까지도 광고란에 실었는데 중간에 이르기까지 자사가 출판한 서적 광고는 위의 두 권이다.

황성신문사는 개화기에 신문사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출판 사업을 폈다. 이 신문사는 사내에 별도로 출판사를 두어 고서를 복간하는가 하면, 1899년부터는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法國革新戰史』를 황성신문사 편집부에서 번역해 간행하였으며, 김상연(金祥演)의 『精選 萬國史』, 안국선(安國善)의 『政治論』 등도 이 신문사에서 발행하였다(조기준, 1970).

황성신문사에 이어 창사한 제국신문사는 이문당이라는 출판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출판 사업을 벌였다. 1897년에 개점한 이문당은 『독립신문』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이 땅에 근대적 서점이 지면 광고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다(이민희, 2007. 120쪽).

8 『독립신문』은 1898년 4월 12일자 이후 장기간에 걸쳐 “천하만국이 의회하는 통용 규칙을 미국 학사 라베즈 씨가 만들고 대한 전 협관 윤치호 씨가 번역하여 박혀 파오니 의회하는 규칙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독립신문사로 와서 사다가 보시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9 『독립신문』은 1899년 11월 24일자 이후 중간한 날까지 줄곧 “서양 음식 만드는 법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본사에서 박혀 파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각종 식물 271 종류를 만드는 법을 다 자세히 번역하였는지라 서양 식물을 만들기에 유익한 책이오니 첨근자는 사 가시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출판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지식인 집단 가운데 일부 인사는 출판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대표적인 출판사로 이용익(李容翊)이 설립한 보성관(普成館), 민영휘(閔泳徽)가 설립한 휘문관(徽文館), 최남선이 설립한 신문관(新文館), 홍순필(洪淳泌)이 설립한 성문사(誠文社)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이용익이나 민영휘 등은 유학을 가거나 신식 학교에 들어가 신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성관이나 휘문관은 신식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주도하여 출판 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신지식인 집단의 활동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출판사는 수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었으나 출판업계에 끼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보성관은 한말에 내장원경으로 있던 이용익(李容翊)이 노일전쟁 중 일본에 납치되어 그곳의 문물과 시설을 둘러보고 느낀 바 있어 귀국한 뒤 1905년에 설립한 출판사다. 그는 귀국할 때 인쇄기계 등을 구입하여 편집소로 보성관, 인쇄소로 보성사를 세웠으며, 교육기관으로 보성소학과 보성중학 및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조성출, 1997).

휘문관은 휘문의숙 설립자 민영휘가 1906년 5월에 설립한 출판사다. 민영휘는 휘문의숙을 세운 뒤 이 학교에 교육부, 편집부 및 인쇄부를 두고 교과서를 편찬하여 출판하였다. 휘문관이 낸 서적은 간기(刊記)에 ‘휘문의숙 편집부 편 휘문관 발행’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휘문의숙은 기획과 편집업무를 맡고 휘문관은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것을 알 수 있다.

신문관은 1907년 최남선이 설립하였다. 조성출(1997)에 따르면, 최남선은 1904년 10월에 15세의 나이로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가서 동경부립제1중학에 입학했으나 그 이듬해 배울 것이 없다고 느껴 자퇴하였다. 그는 1906년 두 번째로 일본에 유학하여 와세다대학 고등사범부 지리역사과에 입학했으나 3개월 후 자퇴하고 1906년 10월 말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하는 길에 인쇄기기 판매회사인 슈에이사(秀英社)에서 최신식 인쇄기자재 일습을 사가지고 왔다. 최남선은 일본에서 사온 인쇄시설을 상리동의 자택(현재 을지로입구 외환은행 맞은편 자리)을

개수하여 설치하고 1907년 6월 초를 기해 거기에 신문관이라는 간판을 걸었다(조성출, 1997, 75쪽). 그는 이듬해 3월에 최초로 간행물을 상재(上梓)하였다. 그는 1908년 3월 『경부철도가』라는 국반판 알팍한 노래 책을 냈다. 자신이 지은 가사책이었다. 그 해 11월 최남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잡지인 『소년』을 창간했으며, 그 뒤로도 『아이들보이』, 『청춘』 등을 발행하였다(조성출, 1997). 최남선은 1910년에 광문회(光文會)를 조직하고 고전 간행사업에 착수해서 『東國通鑑』을 비롯하여 『東國兵鑑』, 『練藜室記述』, 『擇里志』, 『道里表』, 『雅言覺非』, 『熱河日記』 등을 간행하였다(조기준, 1970).

출판에 대한 이전의 인식이 계몽에 중점을 두었다면,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에는 구국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이에 따라 신지식인 집단의 출판 운동은 민족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서게 되었다(이중연, 2001). 대한제국 시기 특히 을사늑약 이후 출판한 서적의 종류를 보아도 당시 출판이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서관에서 1908년에 발매한 서목을 보면 역사전기서류가 40종, 지리 및 지도서류가 20종, 산술교과서류가 12종, 정치 및 법률서류가 19종, 실업 및 경제서류가 23종, 교과 및 교육서류가 48종, 어학 및 잡저서류가 27종, 신간 소설서류가 23종이다. 정치서 가운데 『牧民心書』, 『欽欽新書』 등 정약용의 저서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서류(新書類)에 속하였다(이중연, 2001). 당시 역사, 전기, 교과서, 사회과학서류뿐 아니라 지지나 소설 등도 민족주의적 취지로 출판한 경우가 많았다(이중연, 2001).

구국을 위한 민족 운동단체인 신민회에서도 출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판기관을 설치하였다. 신민회는 1906년 안창호, 이갑, 이동녕, 양기탁, 신채호, 노백린 등의 민족 운동가들이 조직한 비밀결사단체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실업, 문화, 교육, 언론 등 각 방면에서 구국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이 신민회가 태극서관(太極書館)을 설립하여 구국운동의 바탕이 될 서적의 판매와 출판을 도모하였다. 이중연(2001)은 태극서관에서 출판한 서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 서적을 출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태극서관의 설립은 당시

민족 운동가들이 출판을 구국운동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 2) 외세의 출판

개항 이전부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서양의 서적을 접하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시대에 서양 서적을 직접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서양 서적을 들여와 읽는 간접적인 수용이 고작이었다. 처음에는 중국에 간 역관들이 중국에서 책을 들여왔다. 개항 이후에는 일본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통신사나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들여왔다.

새로운 서적은 중국에 와 있던 구미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되기 전에 한국인의 기독교 접촉은 주로 만주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백낙준, 1977). 선교사들은 외국에 머무르면서도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한국을 연구하고, 성서를 번역해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테면 만주 우장(牛莊)에 도착한 존 로스(John Ross)는 선교의 미개척지인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 고려문(高麗門)까지 왔다. 그는 거기서 이응찬(李應贊) 등을 만나 한글과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운 뒤, 1877년에 *A Korean Primer*라는 한국어 초보에 관한 89쪽의 우리말 회화 책을 출판했고, 1882년에는 그 책을 101쪽으로 증보한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를 냈다. 로스의 동료 선교사인 매킨타이어(Macintyre)도 1879년에 *Notes on the Corean Languages*라는 어휘집을 냈고, 또한 한국의 역사, 문화, 풍습을 연구하여 1880년에 *Corea, it's History, Manners and Customs*라는 404쪽의 저서를 런던에서 출간하였다.

존 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어 1882년에 『누가복음』을 비롯해 『요안복음』을 간행하였다. 1883년에는 개정한 『누가복음』과 『요안복음』, 신역 『말코복음』과 『맛대복음』을 간행했고, 1884년에는 『누가복음』과

『데자행력(사도행전)』을 합본해 출판하였으며, 1885년에는 『로마인서』, 『코린도 전후서』와 『가라타서』와 『이비소서』를 출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출판한 것을 모두 합하여 1887년에 『예수성교전서』를 활판본으로 간행하였다(고덕환, 1984).

일본에서는 당시 주일 미국성공회 총무 루미스(Henry Loomis)가 이수정(李樹廷)의 신앙이 두터운 것을 알고 그에게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하기를 요청하자 이수정이 1차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교경전의 속문법(屬文法)대로 『懸吐 漢韓新約聖書』를 1884년에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 책이 국내 반포에 적당하지 못하다 하여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수정은 2차로 일본에서 사용하던, 한자 오른쪽에 우리말을 붙이는 언해법(諺解法)을 써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1884년에 『新約 馬加福音書 諺解』를 출판하였다. 이 한글판은 1885년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가지고 입국하였다(고덕환, 1984; 백낙준, 1977).

개항 이후 외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선교의 자유도 보장되자 외국 세력은 외방에서 서적을 발행해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보다는 직접 우리나라에서 각종 서적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구미 선교사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나 노일전쟁이 끝나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침탈을 서둘러 출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절에서는 차례로 국내에서 벌인 구미 선교사와 일본인의 서적 출판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1) 구미 선교사의 출판 활동

19세기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일은 지배층이 이단으로 여기던 서학 서적이 국내에 나돈 사실이다. 서학서는 광해군 대에 이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남인 학자를 중심으로 전파되다가 정조 9년(1785) 천주교 금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금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리서, 기도서의 한글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천주교 신앙의 전국적 확산에 큰 도움을 주었다. 1800년에 천주교 신자

들은 목판으로는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하였다. 신유박해 때 체포당한 김의호(金義浩)는 그 해 정월에 “책판을 추심하기 위하여 송재기의 집에 갔다가 황사영을 보았다.”고 자백한 바 있어 적어도 1800년에 목판본 천주교 서적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중연, 2001, 347쪽)

그러나 개항 이후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 다양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선교 사업은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였다. 초기에 선교사 자격으로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미국 북장로교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미국 북감리교의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와 스크랜틴(William B. Scranton), 그리고 스크랜틴의 모친인 매리 스크랜틴(Mary F. Scranton) 등이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도착하였고, 스크랜틴 일행은 한 달 뒤인 5월 3일에 입국하였다(민경배, 1972; 한규원, 2003).

이들은 주로 두 가지 활동을 벌였다. 하나는 기독교 교리를 구두로 전파하는 직접 전도였고, 다른 하나는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 자제를 교육한다든지 병고에 신음하는 이들을 도와 줄 병원을 운영하는 등의 간접 전도였다. 그들은 어느 활동을 하건 선교를 위해서는 서적 출판을 서둘러야 하며 출판을 위해서는 인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펜젤러는 1889년 중국에서 선교하던 올링거(Franklin Ohlinger) 목사를 불러들여 1891년에 배재학당에 삼문출판사(The Trilingual Press)라는 인쇄 출판업소를 설립하였다(백낙준, 1977). 이 출판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32면 활판식 인쇄기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제 자동절단 전지기를 설치하고, 일본에서 주조기를 들여와 한글 연활자와 영문활자를 주조하였다(윤춘병, 33쪽). 삼문출판사에서 발행한 서적은 대략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 선교용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었고, 둘째는 배재학당을 비롯하여 몇몇 학교에서 발행한 교과서였으며, 셋째는 성경이나 찬송가를 위시한 기독교 도서였다(윤춘병, 1984).

1893년에 올링거가 한국을 떠나자 출판 사업은 험버트(Homer B. Hulbert) 선교사가 맡아 운영하였다. 험버트는 1895년 중국 상해에서 자모를 대량 구입하여 삼문출판사의 인쇄시설을 확충하는가 하면, 1896년

에 인쇄소 부속으로 제본소를 설치하였다. 그는 또 1895년 5월 8일에는 종로에 감리교서점을 차리고 출판사에서 발간한 서적을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힘썼다.

성서간행을 위해 1887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헤론(John W. Heron) 등이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선교사들이 들어 오기 전에 만주에서 로스가 중심이 되어 역간한 성서와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서가 국내에 보급되어 있었지만 함경도 사투리가 많다든가 언해식(諺解式)으로 되어 있다든가 하여, 표준어로 언문일치체의 성서를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성서 번역은 번역위원회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임하는 바람에 번역을 시작한 지 13년만인 1900년에야 비로소 번역판 신약전서가 나왔다. 구약성서는 1911년에 완역하여 출판하였다(김양선, 1980).

1889년 10월에는 선교사들이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 댁에 모여 대한성교서회(The Korean Tract Society)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제반 준비를 끝내고 이듬해인 1890년 6월 25일에 헌장을 만들었다. 이 성교서회가 맨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 『聖敎撮理』(Salient Doctrine of Christianity)이고 그 다음이 『張袁兩友相論』(Two Friends)이다. 성교서회는 그밖에도 10여 종의 소책자를 출판하였다(김춘배, 1960). 서회가 설립된 지 약 10년이 지난 1903년에 이르러서는 출판하여 판매한 서적의 총 부수가 25만여 부에 달하였다(김춘배, 1960).

선교사들은 성서 번역과 거의 동시에 찬송가의 편간에도 착수하였다. 1892년에 감리교 존스목사가 『찬미가』를, 1893년에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가 『찬양가』를, 1895년에 마펏목사가 『찬성시』를 각각 출판했다. 19세기 말까지도 선교사들은 이런 찬송가 서적을 교파별로나 지방별로 따로 사용하였으나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교회가 합동으로 『찬송가』를 출판하여 선교에 활용하였다(김양선, 1980).

선교사들은 아울러 한국 선교의 기초 작업으로 한국의 역사, 지리, 문화, 언어, 풍습, 종교 등을 연구하였다. 언더우드 목사의 『한영문법』, 『한영자전』, 『영한자전』, 게일 목사의 『辭課指南』, 『한영대자전』 등은 『한불자전』, 『한불문전』 다음 가는, 한국어 연구의 중요한 교본이 되었

다. 이 밖에도 한국 연구서로 비숍의 *Korea and Her Neighbors*(1898), 헐버트의 *The Korean History of Korea*(1905)와 *The Passing of Korea*(1906), 알렌의 *Things Korean*(1908) 등이 차례로 나왔다.

선교사들은 학교에서 쓸 교과서 출판에도 착수하였다. 교과서는 선교사들이 번역하거나 직접 저술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게일의 『*扁夢千字*』, 베어드 부인(Annie A. Baird)의 『식물학』, 『동물학』, 『물리학』, 『지리학』, 필드(Eva Field)의 『*算學新編*』, 헐버트의 『*土民必知*』, 밀러(Edward H. Miller)의 『*初學地誌*』, 변하이셀(Charles Bernheisel)의 『천문학』, 노블(William A. Noble)의 『심리학』, 그레이(Henry Gray)의 『해부학』, 그 밖에 『화학』, 『약물학』, 『세균학』, 『위생학』 등이 잇달아 출판되었다(고덕환, 1984; 백낙준, 1977). 헐버트가 쓴 『태서신사』, 『대한역사』, 『사민필지』 등은 학교의 교과서로는 물론이요 일반인의 교양서적으로도 널리 읽혔다(윤춘병, 1984)

선교사들은 또한 각종 신문이나 잡지를 교회의 기관지 형태로 발행하였다. 선교 초기에 발간한 정기간행물은 1889년 5월 이래 아펜젤러가 월 2회 발행한 『교회』를 비롯해, 1892년 1월 올링거가 편집한 영문 월간지 *The Korean Repository*, 1897년 2월 2일 아펜젤러가 그동안 발행해 오던 『교회』를 발전시켜 발간한 주간 『조선그리스도인회보』,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같은 해 4월에 창간한 주간 『그리스도신문』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1900년 12월에 감리교회 조원시(George H. Jones)가 한국에서 최초로 신학 연구지 『신학월보』를 발행하였고, 1901년에는 헐버트가 영문 월간지 *The Korean Review*를 펴냈다. 장로교회의 빈턴(Charles C. Vinton)은 부정기로 *The Korea Field*를, 감리교의 조원시는 *The Korea Methodist*를 각각 발행하다 1905년에 이르러 두 영자지를 합하여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발행하였다. 그밖에도 정동 감리교회에서 『에잇 청년회보』와 『성경강론월보』 등을 발행하였다(윤춘병, 1984)

## (2) 일본세의 침투와 출판

조선 정부는 1895년 5월 초에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의 이름으로 주일공사 영사무서리 한영원(韓永源)에게 훈령하여 일본 심상사범학교



와 고등사범학교의 교과서 및 참고서 각 1부를 구하여 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교과서를 편찬하였기 때문에 이미 교과서의 골간은 일본의 것을 수용한 셈이었다. 이에 따라 1906년 2월에 설치한 통감부는 장차 출판할 교과서를 검인정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통감부는 새로 제정한 각급 학교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교과서 사용에 관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 뒤에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사립학교령을 발표하고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였다. 교과용 도서 검정을 위해 학부에서는 검정 내규를 제정하고 이 내규에 준하여 검정을 실시해 나갔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통감부는 1909년 2월에는 내부대신의 이름으로 출판법을 제정하여 모든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했다. 이로써 통감부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통제는 이종으로 진행되었다. 출판법이 내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출판을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자체 편찬하여 사용하던 교과서나 민간이 제작하여 사용하던 교과용 도서는 물론 일반 출판물도 먼저 내부대신의 허가를 얻은 뒤에 검정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출판법이 공포된 이후 교과서 발행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종국에 따르면 1909년 12월 1일 현재 발매금지된 도서가 39종에 이르렀으며 이듬해 8월에는 99종 125책으로 늘어났을 정도였다(1991a, 160쪽).

강제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의 인쇄업계에 침투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인 민간인이 경영하는 인쇄소는 10여 개나 되었다. 일본 민간인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한 인쇄소는 도산인쇄소(桃山印刷所, 모모야마인쇄소)다. 1900년에 히로야우타로(廣谷卯太郎)라는 자가 용산방 만리창 부근에 이 인쇄소를 설립하였다(조성출, 1997). 이름을 도산이라고 한 것은 '그 일대에 복숭아밭이 많았기 때문'이다(조성출, 1997, 70쪽).

일본 민간인이 경영한 것으로 그 시설 규모가 제일 큰 인쇄소는 1904년 가을에 한성부 황화방(皇華坊) 서소문동에 들어선 일한인쇄합명회사였다. 이 인쇄소는 여러 일본인이 합자해 세웠는데 1906년에 불

이 나 지금의 명동으로 임시 옮겼다가 1908년 만리동에 대대적으로 신축 이전하고, 상호를 일한도서주식회사로 고쳤다. 이 인쇄소는 표면상으로는 일본 민간인의 주식회사 체제였으나 실제로는 일본 정부 요리와 밀착한 인쇄 및 출판사였다. 이 인쇄소는 1906년에 설립한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발주하는 대량의 인쇄출판물을 거의 도맡았다. 일한도서주식회사는 1919년에는 상호를 조선인쇄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조성출, 1997).

두 인쇄소 말고도 1900년대에 서울에는 일인 소유로 예가와활판소(川江活版所), 아마도인쇄소(大和印刷所) 등이 있었고, 1907년경에는 이미 10여 곳이 문을 열었다(백운관 부길만, 1992). 일본자본은 서점업에도 일찍부터 침투하였다. 이 서점들은 주로 일본에서 간행한 신간서적을 취급하였다(백운관 · 부길만, 1992).

## 5. 내부 생산 주체별 출판 활동의 목적

지금까지 개화기에 이루어진 출판 활동을 생산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부 세력으로는 정부와 토착자본 및 지식인층이 출판 활동을 주도하였으나, 아울러 외부 세력으로 먼저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 문호개방과 거의 동시에 각종 서적을 발행하였으며, 나중에는 일본이 노일전쟁 이후 통감부를 통해 주로 교과서 발행을 간섭하고 통제하는가 하면, 일인 업자가 인쇄 출판은 물론 서적 유통에도 침투하였다. 물론 서양 선교사들이나 일본 업자의 출판 활동은 본질적으로는 선교 활동이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주체적인 서적 생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나 신지식인 집단 및 토착자본은 무엇을 목표로 하여 출판 활동을 벌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별로 어떤 책을 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교과용 도서 출판을 관장한 학부와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출판사인 보성관, 토착자본가가 경영한 대표적인 민간 출판사인 회동서관의 출판 내역을 비교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생산 주

표 1. 주요 생산 주체의 용도별 서적 출판 내역

출판사	교육용	계몽용(교양, 실용)	오락용
학부 편집국	泰西新史 公法會通 東輿地圖 朝鮮歷史 朝鮮略史 朝鮮地誌 輿載撮要 地珍略論 萬國地誌 萬國略史 士民必知 編蒙叢論 尋常小學 尋常小學 尋常小學 (권3) 國民小學讀本 小學讀本 近易算術 算術新書 簡易四則 小地球圖 國文 小地球圖 西禮須知 夙惠記略		
보성관	東國史略 東西洋 歷史 越南亡國史 世界一覽 初等小學 商業大要 新編 博物學 外交通義 中等生理學 家庭教育學 萬國地理 師範教育學 新編 大韓地理 商業汎論 普通經濟學 中等地文學 農學初階 心理學 銀行論 會社法 綱要 貨幣論 小物理學 初等理化學	五偉人小歷史 比律賓戰史 比斯麥傳	
회동서관	新訂算術 新編 動物學 字典釋要	秘書三種 海東名將傳 華盛頓傳	西廂記 철세계(과학소설) 설중매 추월색

체가 어떤 목적으로 출판 활동을 벌였는지 추론하기로 한다.

당대에 도서를 출판하는 목적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학교교육에 쓸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다. 새로 각급 학교가 개설되자 학생은 새로운 독서층을 형성했다. 정부는 이들 학생층을 대상으로 교육용 도서를 발행했다. 둘째는 대중을 계몽하기 위해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다. 개화기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서적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출판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양서적이거나 계몽적 독서물, 또는 실용서적을 출판한 경우가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는 일반 독서대중을 겨냥하여 오락용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이다. 개화기에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출판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읽을거리를 냈다. 신구 소설을 비롯한 문예물이나 흥미 위주의 도서가 그 예이다.

여기서는 당대의 대표적인 주요 생산 주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학부와 보성관 및 회동서관이 발행한 도서목록을 위의 세 가지 용도 별로 분류하기로 한다. 학부의 도서는 안춘근(1987)이 정리한 것<sup>10</sup>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성관의 도서는 이종국(1991a)이 조사한 1906년 6월의 보성관 신간서적 광고에 나온 목록을, 회동서관의 도서 목록은 이종국(2005)이 조사해 정리한 것<sup>11</sup> 가운데 1910년 이전에 발행한 것만을 뽑아 분류하였다. 재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기구인 학부는 학교 교육용 도서만을 출판하였다. 새로 개설한 육영공원을 비롯하여 사범학교나 초중등학교 등 신식 교육기관이 늘어 차츰 학생이라는 안정적인 독서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학부는 이들 학생을 겨냥한 교과서용 도서의 출판에 전력을 기울였을 것일 수 있다. 양현규(1974)에 따르면 갑오개혁이라는 대변혁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중간층 독자층이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지

10 안춘근의 『한국출판문화사대요』(서울: 청림출판)의 316~318쪽, 374~378쪽. 단, 목록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출판한 『逸士遺事』, 『交際新禮』, 『日鮮文高等流行尺牘』, 『詩人選集』, 『海東詩選』, 『孫武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검. 『한국출판학 연구』, 49, 240~245쪽.

식인 집단이 경영한 보성관은 학교교육용 도서에 역점을 두되 계몽용 도서도 많이 출판하였으며, 토착자본가가 경영한 회동서관은 교육용 도서와 계몽용 도서는 물론 오락용 도서까지 고루 출판하였다.

이종국(2005)이 정리한 목록에 따르면, 회동서관이 1907년부터 1918년간에 발행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정확한 발행 연도를 알 수 없는 서적이 상당수에 이른다. 해당 서적만을 대상으로 교육용, 교양용 및 오락용으로 재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표를 통해서 회동서관이 개화기 이래 3·1 운동 이전까지 별다른 차이가 없이 계몽용 도서나 교육용 도서에 못지않게 오락용 도서 발행에 큰 비중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의 두 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학부가 출판한 도서는 거의 모든 것이 서구의 신지식을 수용한 것으로 학부가 근대 지향적인 출판에 주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보성관 역시 근대지향형 도서를 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토착자본이 경영한 회동서관은 『原本辯疑大學集註』, 『原本辯疑孟子集註』, 『原本辯疑小學集註』 등을 비롯해 『儒教淵源』, 『字典釋要』와 같은 전통 지향형 도서를 교육용 도서로 발행하였으며, 『新編 圃隱集』, 『東醫壽世保元』, 『新校重訂 方藥合編』, 『朱子家訓令』 등과 같은 전통적 도서를 교양용 도서로 발행하는가 하면, 전통소설이나 신소설 등을 오락용 도서로 많이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종국(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07년 8월 이후 융희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소설류 등 대중적인 상업적 신서적이 왕성하게 출판되었는데 이런 흐름을 주도한 것이 회동서관 등 토착자본가 경영의 출판사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부나 보성관 및 회동서관이 겨냥한 소비층이 다르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즉, 학부는 주로 신식 학교의 학생을 소비자로 특정하였으나, 보성관은 학생 독자 외에도 신지식인 집단을 겨냥하였으며, 회동서관은 신지식인층은 물론 전통적인 유교적 지식층이나 일반 대중까지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책을 출판한 것이다. 회동서관의 출판 목록을 통해, 소비자가 있으면 찾아가는 토착 상업자본의 속성을 간파할 수 있다. 양현규(1974)는 개화기에 시기에 따라 독서층이 달라졌다는

표 2. 1907년~1918년 회동서관 발행분 중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는 서적

교육용	계몽용(교양, 실용)	오락용
日韓會話辭典	孫武子	고금기담집
儒教淵源	新編 圃隱集	김옥련
原本辯疑 大學集註	改正集 葬墓地如何	런광덩
原本辯疑 孟子集註	現行 法令新編	목단덩기
原本辯疑 小學集註	桐樹栽培法	부용헌
原本辯疑 中庸集註	蔬菜栽培全書	삼국지
精選 算學	養鯉新法	삼국풍진 제갈량
中等算術	養蠶實驗說	삼래덩
學徒指南	外國貿易論	쇼대성전
經濟通論	接木新法	슈허지(전집, 후집)
農業大要	懸吐 山林經濟	신라의 보쌈
農業新編	經驗神方	악의 던단던
東西醫學新論	單方秘密 經驗新編	애정소설 사촌몽
高等漢語字解	東醫壽世保元	옥란방
無師自通 高等英語	新校重訂 方藥合編	음양삼태성
日語 獨學	新訂 育兒法	朝鮮名勝詩選
初等 諺文	醫門須知	朝鮮古歌集
華語教範	醫門寶鑑	중수 춘향전
華音正彙	醫方新鑑	楚漢風塵 흥문연
漢文義讀 自解	警心百花	타호무송
漢日辭 作文 千字	四柱卜筮觀相法	海王星
	新撰諺文 家庭簡牘	奇聞美談春夜彙編
	諺文 便紙法	最新唱歌
	一見能解 唐畫周易	
	일용보감	
	朝鮮流行尺牘	
	朱子家訓令	
	最新式 註解尺牘	
	八種 簿記	
	現行 四禮義節	
	獨習畫法眞訣	
	말 잘하는 시위	
	文體筆論習字帖	
	李小南 法帖	
	朝鮮 新樂譜	
	朝鮮 舊樂譜	
	海岡蘭竹譜(상,하)	
	新式諺文 無雙尺牘	
	日鮮文 高等流行尺牘	
	增補 註解 尺牘	
	東西偉人少年	
	伯林巴里	
	袁世凱實記	
	逸士遺事	
	耽羅紀年	

고 한 바 있으나, 생산 주체에 따라 독자층이 달라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6. 결어

개혁을 전후해 외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서적 출판 분야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구미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선교용 도서를 잇달아 출판하였다. 일제도 노일전쟁에 승리한 뒤 정부의 교과용 도서 출판을 통제하는가 하면 인쇄업자들이 서울 등지에 들어와 새로운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출판 또는 인쇄사업을 벌였다.

내부 세력도 출판 사업을 서둘렀다. 정부는 새로 등장한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인 교육 출판 사업에 뛰어들었고, 신지식인 집단도 다투듯이 학생은 물론 지식 대중을 겨냥한 계몽서적을 출판했으며, 토착자본도 근대적인 인쇄출판 시설을 갖추고 교육용 도서나 계몽서적은 물론 오락서적까지 찍어냈다.

이 연구에서는 내부 세력의 출판 활동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 정부 기구인 학부,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출판사인 보성관, 토착자본이 경영한 회동서관의 출판 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생산 주체의 출판 목적을 비교하였다. 이런 일련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정부는 교육용 도서의 출판에 주력하였고,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출판사는 교육용 도서와 계몽용 도서의 발행에 엇비슷한 비중을 두었으며, 토착자본가가 경영한 출판사는 교육용 도서나 계몽용 서적은 물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용 도서까지도 많이 발행하였음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세 생산 주체의 출판 활동을 토대로 정부나 신지식인 집단 및 토착자본의 출판 활동의 목적이나 성격을 일반화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더 많은 사료를 발굴해 각 생산 주체의 출판 활동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때 보다 정확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관 (1999). 근대 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14, 민족문화사연구소. 42~75.
- 강운호 (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 고덕환 (1984). 『개화세력사회의 출판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논문.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1). 『한국도서해제』.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국사편찬위원회 (2000). 『한국사』, 45; 신문화운동 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5.
- 권순궁 (1993). 활자본 고소설의 간행과 유통. 『소재영교수 기념논총, 고소설사의 문제』. 서울: 집문당. 955~965.
- 권순궁 (1990).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욱 (1960).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울』, 8, 38~67.
- 김두중 (1974).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 김민환 (2006). 『한국언론사』. 파주: 나남.
- 김봉희 (1999). 『한국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김양선 (1980).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 김양수 (1994. 12). 조선전기의 출판 정책, 『출판학연구』, 36, 81~100.
- 김춘배 (1960). 『대한기독교서회 약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남정희 (2006). 공안과 서적의 도입과 독서체험의 실상, 홍선표 외 『17, 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 서울: 혜안. 15~49.
- 노평목 (1981. 6). 한국기독교성서 출판 소고 『출판학논총』, 23, 28~33.
- 리철화 (1954/1995). 『조선 출판문화사』(고대-중세). 서울: 백산자료원.
- 민경배 (1972).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민병덕 (1992). 한국 개화기의 출판관에 관한 연구. 『출판학연구』, 34, 69~100.
- 백낙준 (1977). 『기독교의 전개』. 서울: 탐구당.
- 백낙준 (1973).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 출판부.
- 백운관·부길만 (1992). 『한국출판문화 변천사: 도서유통의 성립과 발전』. 서울: 타래.



- 부길만 (2003).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서울: 서울출판미디어.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조선문화사』. 서울: 오월. 110.
- 소재영 (1995). 고소설 판본의 형성 유통.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고소설연구 총서 3』. 서울: 아세아문화사. 205~221.
- 손보기 편 (1971). 『한국의 고활자』. 서울: 보진재. 977~978.
- 신석호 (1986). 편찬사업. 『한국사론』, 3, 국사편찬위원회. 162~185.
- 신양선 (1996).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서울: 해안.
- 안종목 (2004). 한국 근대 신문 잡지의 발달시기에 선교사들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5~28.
- 안춘근 (1994). 『한국서지의 전개과정』. 서울: 범우사.
- 안춘근 (1987). 『한국출판문화사 대요』. 서울: 청림.
- 안춘근 (1968). 방각본 논고. 『서지학』, 1, 7~18.
- 양현규 (1974). 개화기의 독서계층. 『출판학』, 22, 66~96.
- 유상호 (1986). 『애국계몽기의 출판문화운동』.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태일 (1975). 『개화기 교과용 도서 총목록』. 대구: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유홍렬 (1962).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가톨릭출판사.
- 윤춘병 (1984). 『한국 기독교 신문잡지 백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민희 (2007).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 서적의 유통관계 연구』. 서울: 역락.
- 이장식 (1965). 『대한기독교서회 100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종국 (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서울: 대한교과서.
- 이종국 (2006). 『출판 연구와 출판 평설』. 서울: 일진사.
- 이종국 (2005).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 215~252.
- 이종국 (1991a). 『한국의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종국 (1991b). 『한국출판사연표』 I.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 이종국 (1986). 신문화 유입기에 있어서의 출판실태 변천에 대한 연구. 『출판학 연구』, 28, 129~180.
- 이중연 (2001). 『책의 운명』. 서울: 해안.

- 이중한·이두영·양문길·양 평 (2001). 『우리 출판 100년』. 서울: 현암사.
- 이창현 (1994).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영표 (1981). 『한국 출판의 사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형우 (1995). 조선 전기의 서적 수집정책 - 중종시대를 중심으로. 『조선기 서적문화 연구』. 두필 정형우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15~239.
- 정형우 (1983). 『조선시대 서지사 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 조기준 (1970). 개화기의 서적상들. 『월간중앙』, 9, 370~377.
- 조성출 (1997). 『한국 인쇄출판 백년』. 서울: 보진제.
- 채 백 (2008).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개화기 출판. 『한국언론정보학보』, 41 권 1호, 7~41.
- 천혜봉 (1990).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47~52, 56.
- 홍선표 외 (2006).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 서울: 혜안.
- Courant, Morrice (1901). Bibliographie Coreenne*, 이희재 역 (1994). 『한국서지』. 서울: 일조각.

최초 투고일 • 2010. 05. 20  
 논문 수정일 • 2010. 08. 01  
 게재 확정일 • 2010. 08. 06